

제420회 국회  
(임시회)

##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8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현안질의 ..... 1

(09시09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안질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안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현안질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및 금융위원장에서부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담회 등 민생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향후 이러한 점들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우대 등의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공청회 등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해서 다섯 차례 상생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생방안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까지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정부·한은의 시장 안정 노력, 기관투자자 매수세 등으로 최저 수준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금리는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 강달러와 국내 상황이 겹치면서 환율이 1430원대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143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양호한 외환 건전성 및 외화 조달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3일 상황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하여 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경기·민생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히고 부문별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 외국 정부,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한국 시장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국제금융협력 대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하고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또 누구 하실……

○김현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거든요, 현안질의를.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1분 이내로 시간 딱 맞춰 주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부터.

○김남근 위원 오늘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증시 상황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법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그런 국방부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점검하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특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 과정 속에서 돌아와 가지고 총리실 회의를 주재를 해 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엄 선포하기 전에 회의를 했다고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선포 전에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총리실의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도 한번 현안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또 다음,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의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덕분에 정무위도 이렇게 다시 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연말 특수도 실종됐고요.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우리 정무위가 내란과 탄핵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관이 출석해서, 반쪽짜리 현황보고를 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반드시 불러서 빠른 시간 안에 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제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기관장에 대한 근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다른 곳은 모두 왔는데 금융감독원장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중에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거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12·3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사건 이후 특히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질의, 총리는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지만 국무조정실장과 총리비서실장한테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저희 정무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빨리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관련 국정 매뉴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위기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이것을 미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들이 국회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자료제출 문제를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한홍 아니, 한창민 위원님 하고.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특히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재차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 정부위에서 이제야 현안질의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늦게 그것도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이 자리에 중요한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총리비서실이나 국조실장이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와 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요.

빠르게 그러한 것들이 점검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계속 내란 사태, 내란, 내란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그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계신,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범죄자 당이라고 또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적 팩트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 여당 위원님들 누구도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사용하실 때 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요. 기다리시면 사법부 판단도 나올 거고 현재 판단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법조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는 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강민국 간사님.

○강민국 위원 정무위 간사로서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또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외적 환경이라든지 또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후의 국내 상황, 대내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말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사실 들여다보려고 참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셔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스럽게 지금 서민경제 그리고 시장 유동성에 대한 걱정 또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불식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의 우리 경제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난 이러한 상황이 또 된다면 굳이 상임위를 열 필요가 있겠냐라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질의할 때 좀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서민경제 그리고 증시 또 외환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같이 함께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하시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적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가 비상 사태 이후로, 계엄 사태 이후로 국가 권력의 공백 내지는 전체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장에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무위가 이 부분에 집중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시고 다음번에 위원장님께서 총리실 또 총리비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 비상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강준현 간사님 하세요.

○**강준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 정부 위 위원님들께서는 또 비상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정무위가 여러 소관 부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 됐든 국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 다 염두에 두어서 존경하는 여당 간사 이신 강민국 위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날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내란이 있었다 하는 표현은 저는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부분은 아직 사법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유영하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경제와 금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이 되기 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무조정실장이나 비서실장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되고 나면 여기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시간을 잡아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감정이 있겠지만 우리 정무위원회는 민생을 챙기는 정말 신사 위원회입니다. 그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경제·금융에 대해서 집중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전 중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아마 제2소위에서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이번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방송 보고 알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민병덕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에 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통보 못 받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원래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발언권이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정부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민병덕 위원 그런데 다른 때는 다 참석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통보 못 받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것에서 우리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 그 의결이……

○민병덕 위원 경제와 금융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기보다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 금감원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12월 3일 밤 한 11시 전후인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어떤 경위로 아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11시 반 정도쯤에 부총리께서 저희 금융팀 소집을 하셔서 그 과정에서 안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금감원장님, 12월 3일 날 오후에 조퇴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한 서너 시 정도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날 독일 금융감독원 감독국 부원장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취소……

○민병덕 위원 직원들 내부게시판에 따르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했다, 12월 3일 오후부터. 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아신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시 40분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은행회관에서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보도를 보고 있는 직후에 10시 한 50분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열린다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바로 가신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민병덕 위원 금감원장님도 마찬가지로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도 기재부에서 급히 모여야 된다고……

○민병덕 위원 그래서 몇 시 정도에 도착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11시 반 정도 전후에 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11시 40분에 간담회를 시작하고 발표문은 11시 40분이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의논을 했습니까? 의논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두 분 다 묻는 겁니다. 어떤 의논을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 보도자료 시간은 11시 40분으로 찍혀 있을 건데, 왜냐하면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찍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 배포된 것은……

○민병덕 위원 이 보도자료가 거기서 논의한 내용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논의한 내용입니다.

○민병덕 위원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 것 아닙니다.

○민병덕 위원 누가 작성해서 미리 가져온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닙니다. 가서 논의를 하고 실무자가 초고를 잡았습니다.

○민병덕 위원 알겠습니다.

발표문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이라고 했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떤 시장 불안이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당시에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환율은……

○민병덕 위원 주식시장·환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환율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대책으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나오는데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한은의 발권력을……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무제한이라는 얘기가 결국 수요가 있는 데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민병덕 위원 가능합니까, 무제한이?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병덕 위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이것 과한 표현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당시로……

○민병덕 위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당시로는 바깥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화 유동성 공급은 가능합니다.

○민병덕 위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44조 빠졌고, 하이닉스 하나가 빠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연기금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 이것을 연기금이

매수를 했거든요. 연기금을 보면 1년 내내 2조 8000억을 매수했는데 그중에서 10일 동안에 1조 80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자료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판 것을 거의 연기금으로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데 연기금은 12월 3일 이전부터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매수 포지션……

○**민병덕 위원** 줄여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 산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니, 그전부터 매수……

○**민병덕 위원** 우리 노후자금으로 이것을 산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나게 위험한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12월 3일 이후만 보셔서 그렇지 12월 3일 이전부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병덕 위원** 감독원장님, 무제한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10일 동안에 엄청나게, 2조 8000억 중에서 1조 80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월 3일 이전부터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병덕 위원** 묻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응을 위해서 금감원장님은 탄핵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금융을 위해서 가장 낫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인터뷰에 보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민병덕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에서 의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저희들 그때도 지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안정을 위해서?

○**금융위원장 김병환**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우리 동료 유명하 위원님께서 내란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 용어 외에 사회적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순치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 불법적 계엄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일지 경제적 비용이 얼마일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게 딱딱 수치화되지 않는데……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주식시장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달리 대비 원화 환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불법적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너무 치솟아 가지고요. 국가의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하락한 걸로, 외평채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외화로 상장할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경제위기 상황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정확한 끝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억이 좀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 4000억 불이 무너질까 봐, 3000억 불대로 내려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조만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외환 당국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은 4 자에서 3 자로 떨어지는 순간에 국가신인도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거시적인 지표에서 위험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금융시장에 분명히 조금씩은 개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각 보유한 달러를 갖다가 자꾸 쓰게 됐을 경우에는 외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점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무디스, HSBC, 바클레이스, 노무라 이런 해외 기관들이 탄핵으로 국내 정치 상황의 예측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안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국에 그만큼 경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점에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게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제대로 순차적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됐을 경우나 극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상한 다른 경우가 나왔을 때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하여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원칙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경제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비상한 시국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부스트 업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하고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F4 회의에서도 추경을 논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슈퍼 추경이 바로 단기간 내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은 예산이 아직, 이제 통과된 상황이고 내년 집행을 좀 더 빨리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 추경 부분은 아마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재부장관님도 아마 재정이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맞습니다. 지금 재정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좀 유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외국인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하셨거든요. 그때 얘기한 이런 의견이 지금 변함이 전혀 없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서 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래서 자본시장법 대안을 제가……

○**이강일 위원**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같이 손을 봐야 된다, 저희들은 이런 입장인 거고요.

금감위원장님, 금감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약간 변동이 있어 보여서 제가 걱정입니다. 금감위원장님이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래에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법 개정이나 주주의 권익 보호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금감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견해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고요.

잠시만요. 이거 끝내고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하셨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강일 위원** 굉장히 좋습니다.

한기정 위원장님, 카드 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영세한 상인들은 사실 배달 수수료하고 관련 있어요. 배달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처럼 법제화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성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지난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방안이 일단 마련이 됐고요. 일단 법제화 이전에 신속하게……

○**이강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 그 상생방안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돼 가지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배달앱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는 영세상인들이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더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교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외려 더 실수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이라든가 동료 위원들이 수수료를 그것보다 더 낮추려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것보다 더 상위의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율처럼 합의안이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교섭력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역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생방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카드 수수료도 됐는데 배달 수수료 인하가 법제화가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이강일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가지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 버렸 다니까요. 외려 안 하면 좋은 걸 갖다 괜히 하셔서 가지고 더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금감원장님 입장 한번 듣고 끝내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상법 개정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님의 정확한 자기 소신을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일관되게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 견해는 변함이 없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다양한 개선안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게 설사 야당에서 검토하신 상법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상장법인의 합병 등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상장법인의 숫자가 지금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그 지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설사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 이외에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강일 위원** 상법 개정과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 결국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혼란이라든지 경제적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은 걱정을 하고 이번 현안질의를 하기 전에 주요 경제지표들을 쭉 살펴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국고채, 회사채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가 비상계엄 시점이랑 비교해서 거의 뭐 비슷하게 회복을 했거나 오히려 코스닥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보다 좀 오른 양상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금융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의 안정세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국민들께서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라고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충격은 좀 덜했고 앞으로 경제 부분만큼은 정치와 좀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장 안정과 또 경제 상황을 좀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또 오늘 보내 주신, 말씀 주신 대응방안 관련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외 신인도 따져 볼 때 CDS를 보게 되는데 CDS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선에서는 조금 안정세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큰 변화 없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다음에는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발표를 하실 거고, 내년 경제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 반도체의 부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아니면 상정이 안 되는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회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결국 기업들 스스로가 공시하고 그에 따라서 주주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밸류업 펀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다만 시장에서 봤을 때 세제상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 지속성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시적인 지표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특히 스타트업 투자 문제, 시리즈 A든 B든지 간에 여기가 요새 상당 부분 좀 위축됐다는 제보들을 제가 좀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장 어떤 지표로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밑바닥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스타트업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총량으로 봐 가지고 지금 변화가 있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만나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 그게 있어서 저희 정책금융 쪽에서 먼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금감원장님한테도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투자 주의 및 경고 지정 건수가 제업 이후에 거의 3배 이상, 투자 주의·투자 경고 모두가 2배에서 3배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게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뭔가 주로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의 등락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나 후속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희도 최근에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거기에 편승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내지는 다양한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보통 때보다 경계심을 많이 높이고 그런 점에 대한 소비자 경보 등을 발령하고 있고 아마 연말·연초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 장세가 커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 기회 주신 김에 한 번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금투세도 됐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보면 해외 투자자들이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ISA 세제혜택 등 뭐랄까, 큰 이견이 없고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연초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봐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한국 경제의 삼각파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각파도. 첫 번째로 우리나라 내부의 여러 경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전망치를 내리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내리고 있고, 특히 외국 기관들은 더더욱 더 어둡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10대 그룹조차도 내년도 경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소추가 발생했다는 거, 이게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민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에 이 절체절명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경제에 삼각파도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동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디테일하게 봐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부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리고 있고 내년도도 지금 한국은행도 1.9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IB들은 거의 1.7, 1.8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다 아실 건데, 포브스에서 이번에 자료에 보면 ‘윤 대통령의 무모한 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명됐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핵안을 통과한 게 한국 정치의 혼란을 종식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한미 관계 약화시키고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수입 관세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관의 실효적 대응책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한다든지 내수 불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강화 노력들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요동치는 환율을 보면 1442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레고랜드 사태 때 1444까지 간 거에 거의 육박했구요. 지금 이런 영향으로 환율과 달러 인덱스 비교를 보면 달러 인덱스 크게 변화 없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오르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내일 밤에 FMC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거의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환율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조금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동수 위원 도움이 될 걸로 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렇게 환율 상승에 따라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니다, 대기업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증안펀드라든지 키스(K-ICS) 유예라든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공매도 제도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해 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여당이 국회를 대하는 방식이, 지금 정부가 여당을 대하는 방식에서 좀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여야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없이 모두 다 합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더욱이 국회의 야당 위원들에게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변화를 촉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 여야 다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도 야당 위원님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또 지금 미래가 정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여야 위원님들이랑 잘 소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한기정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8일 날 우리 국회중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지금 말씀들 주고 계신데 뭐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국회중언·감정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기업들의 핵심 기밀이 정치권을 매개로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연중 내내 기업인들 줄소환되면서 이게 상시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계가 개정안에 대해 굉장한 우



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공정위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정위가 기업들 비밀까지 제출하라 요청해야 할 판인데 위원장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법안의 취지는 국회 국정감사 권한 등을 원활히 행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영업비밀 등은 타 법률에 의해서 또 엄격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두 가지 법익이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영업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저희 공정위 임의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조사의 실효성에 좀 우려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제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인데요. 당시에 민주당이 개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 밀어붙이는 거 반대했었는데, 본회의에서 반대로론도 했습니다만 다수 의식으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밀이나 극비 자료가 전 세계로 새어 나가면 이를 노리고 있었던 다른 나라나 외국 기업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나 걱정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 강력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재의 요구를 건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아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명구 위원**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현재는 1430원 대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도 일정 수준 낙폭을 보여 주다가 다시 회복해서 2500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충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위원** 예전에 비해 가지고 기초 체력은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리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그동안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과 그리고 감독원장님께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1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는데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하는 거, 이거 밸류업 세제 혜택들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마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나 밸류업을 위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센티브가 빨리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수록 금융 당국이 좀 더 힘을 내서 가지고 금융시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하고 안정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밸류업 정책도 세제 혜택 무산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첫 정무위 현안질의여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조금 전에 TV를 보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들으셨다고 했지요? 그때 들었던 첫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분 다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사회적 비상 상태에 발동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느끼고 계셨었는지……

○금융위원장 김병환 많이 놀랐습니다.

○박상혁 위원 많이 놀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많이 놀랐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많이 놀랐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통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박상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단 시장 걱정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장 걱정을 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상혁 위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었는데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이런 일을 자주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니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금감원장님은 어떠셨습니까, 12월 3일 처음 이 뉴스를 접하고? 또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사이시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매우 놀랐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빨리 시장 조치를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뉴스를 보자마자 그것부터 생각이 드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왜냐하면 저희가 레고랜드 때부터 어떤 쇼크에 대해서 해외라든가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최근 이삼 년 동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지금은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 나라를 망치겠구나. 경제를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감원장님부터 생각해 보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 시점에는 뭔가를, 그런 어떤 넓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당장 놀랐고 놀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특히나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역외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 그것에 생각을 집중했고.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저도 어쨌든 간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금융위원장님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으로 경제는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할 경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11시 40분에 도착하셨다고 그랬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상혁 위원** 계엄이 발표된 게 10시 한 20분 좀 넘어서였거든요. 댁이 어디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연희동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연희동 사시지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박상혁 위원** 직접 나가셨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박상혁 위원** 금감원장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는 회사 차 이용해서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시간에 불렀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게 아니라 아마 11시 반 조금 지난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아서 회사를 통해서 먼저 연락이 오다 보니까 회사 비서팀에서 먼저 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때 출장 중이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정위는 회의를 다음 날 4일 아침 8시에 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렇게……

○**박상혁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은 다 비상 상황에 출근하지 않나요? 왜 공정위는 이렇게 출근이 늦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상황은 12월 3일……

○**박상혁 위원** 왜 다들 집에 계세요, 공정위 직원들은? 물론 F4 회의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합니까, 공정위는? 그런 비상 상황이면 충무계획이라든지 을지훈련 통해서 여러 가지 대비 준비를 했을 텐데 왜 공정위는 아무도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충무계획과……

○**박상혁 위원** 나중에 이것 다 감사받으셔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된 매뉴얼은 없었고요. 출근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공문을……

○**박상혁 위원** 관련된 매뉴얼이 없습니까, 공정위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비상계엄 관련된 출근 시간이나……

○**박상혁 위원** 총무계획이나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유사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다 출근했어야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재난 등 관련된 일반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왜 출근을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장이 열려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특히 신한은행이라든지 몇몇 금융기관들은 다 그 시간에 소집되어서 여러 가지 비상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정위가 환율이라든지 금리, 추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모든 공무원들 또 여러 다른 지자체라든지 많이 다 출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이야 그 당시에 출장 중이시라고 하지만 뒤에 계신 공정위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 즉각적으로 실국장들을 소집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왜 그런 비상체계를 가동하지 않나요?

저는 이 문제는 향후에 다 점검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는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12·3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용어를 써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란의 정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높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니라 내란에 준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첫 현안 점검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정위원장을 제외하고 두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 놔다가 차관보한테 넘기는 바람에 자기가 쪽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부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재위에서. 당시 쪽지 관련한 이야기를 회의에서 나왔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듣지 못했습니다.

○**한창민 위원**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한창민 위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처음에 오자마자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유지될 상황이라고 보고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은 위헌적인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 관련된 것에서 해제가 진행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점검하고…… 이런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이후의 상황까지는 어차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강하게 하시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떤가에 대해서 점

검을 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비상계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했던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회의가 11시 40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는 국회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경황은 없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경황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 시장은 그냥 돌아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자들이 문의가 들어오면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짧게 답을 해 주세요.

경제라는 게 정치와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리스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수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금감위원장님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위헌적인 계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긴급점검회의, F4 회의를 진행했던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날 12월 3일 밤 11시, 12시, 1시로 넘어가는 상황이, 역외 원화 시장이 2시까지 열려 있는데 12시가 크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장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을 뭔가를 내야 역외 원화 시장에서 원화 코호트가 정해지고 그게 그다음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이 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더하여 최고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되게 빨리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 중에,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눴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통령한테 언질이 있었냐, 서로 확인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 넷 다 언론을 보고 알거나 어쨌든 11시 전후 상황에 알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도 뭔지 모르고 끌려갔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본인은 반대하고 박차고 나와서 일단은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넷을 먼저 불러 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금융 그다음에 외환시장 안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원장님한테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침체나 경제 상황,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제2의 폭탄을 맞아서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연말·연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조금 더 금융 공급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재난 상태에 준하는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제안하거나 이럴 생각 없습니까?

두 분 다 말씀을 짧게라도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관련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지금은 연말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이든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연말에 회식이 있거나 그것 할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저희 금융 쪽에서는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만, 협의 중입니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그냥 계획에 따라서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는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훨씬 더 어려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국가 공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그 F4 회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은행회관입니다.

○**이인영 위원** 은행회관에서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인영 위원** 그 은행회관이 공적 장소인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은행연합회 것인데요.

○**이인영 위원** 공적 장소는 아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공적 장소는 아닌데 금융……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상계엄 혹은 이런 비상시에 각 기관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공정거래위에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리가 없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기관이 아니에요. 부처는 다 있을 텐데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재난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관련된……

○이인영 위원 아니, 재난뿐만 아니라 계엄과 등등의 비상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제가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 다 확인들 하셨나요? 그에 맞춰서 대응들 하셨나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했고요. 이게 저희가 사실 레고랜드부터……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지 안 그런지만 확인하면 돼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계엄 등의 비상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에 대응들 하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계엄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 급변 상황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계엄과 같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한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급변 이런 것에 맞춰서, 그 대응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게 레고랜드 사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쇼크가 될 수 있지만……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군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비상 사태에 하는 매뉴얼을 따라 했는지는, 매뉴얼은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는지는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짚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 매뉴얼은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금감원장 애기한 대로 금융시장의 급변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에 맞춰서 작동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차적으로는 금융시장 급변에 대응하는 매뉴얼로 움직였습니다.

○이인영 위원 됐고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비상계엄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시장 변동에, 급변 시에 맞춰서 작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것에 맞춰서 각 기관들이 움직였느냐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통화 중심 정책을 우선합니까, 아니면 재정정책을 우선해야 합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재정정책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예를 들어서

아까 발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더 많이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적인 타격이 컸던 데, 이런 데부터 우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한창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아니겠어요? 거기는 장기분할상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상환 연장·유예 이런 것들을 검토하든가 이렇게 해서 곧바로 대책이 되지 않으면, 너무 늦은 대책은 하나 마나인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지 나중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내란 상태, 준내란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는 주춤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락세가 소폭으로 축소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정 내지는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8월 이후에. 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됐다,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뭘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 사태 전부터도 결국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다시 부활을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는 회의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쏟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실물경제, 산업 전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금융 차원에서의 대책은 뭘까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은 결국 밸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밸류업, 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어떻게 보면 먼 얘기 같지만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 포지션을 조정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선진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도 그렇고 저희 당국도 그렇고 좀 더 신뢰라든가 뭔가 가시적인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산업 구조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정치적인 불안정성, 이 세 가지 박자를 동시에 잘 맞추지 않으면 어느 하나만 통그러져도 심각한 문제로 번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건설업이라든가 지방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챙겨 보겠고.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은행연합회에 모인 건 저희가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국제금융센터라고 국제금융과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저희·금융위·기재부 같이 설치한 기관이 거기 있어서 국제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에 모이는 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기관에서,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그 점은 있습니다. 늘 저희들이 거기서 모이는 이유가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기 때문에 총재가 정부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감안해서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건 한번 다시 논의해 보세요.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위원님들이 용어 때문에 초반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계엄 사태가 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같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보통의 정치 영역은 협상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단호한 입장 그리고 행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 죽을 테니까요.

제가 포브스 기사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행위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 윤 대통령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한국의 군부통치 시절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을 떠올렸다. 투자자들은 현대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시행한 아시아 국가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들어왔다. 대단한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이번 일과 관련된 입장을 볼 거라고 봅니다.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또 다른 극복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8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짓는 과정을 합니다.

여기에 최상목 기재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서 계엄령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최상목 재무장관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포브스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탄핵이 두 번 있었는데요. 2004년하고 2016년,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조건은 뭐뭐가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2004년의 경우에는 대외 여건상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였고 16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고, 그런데 그런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지금 소위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김재섭 위원의 질의에 숫자와 이런 게 변동치 않아서 여건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숫자가 올랐지요, 지표 숫자로만 보면.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숫자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경제지표로는 특히 투자심리, 소비심리지수 이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 이전으로는 102에서 93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83이거든요. 소비심리도 안 좋고 해외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칩스법이나 IRA나, 미국의 트럼프와 관련해 1월 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장 피해 볼, 대한민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좋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이제 아까 말한 미안마나 태국 이런 나라랑 대한민국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믿고 해 볼 겁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호황이었을 때는 거기다 물건 팔아서 산 적도 있고 반도체를 우리가 잘 파는 사이클로 극복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1월 달에 트럼프가 들어오면 그거 다 막히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48년 기준에 갖다 놓고 미안마랑 비교하는 투자시장의 하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위원장님, 우리가 살아 나가야 될 방법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어려운 상황이고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거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통해서 안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획되면 포브스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뒤에 써 놔습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은 제거돼야 된다는 취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정책에 대한 중요성 지금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이 먼저 더 힘들어지고 소비심리가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 이런 데 너무 막, 거의 파편화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여기 금융 관련된 금감원장님 또 금융위원장님 또 공정위원장님 다 합심하셔서 서민 관련된 확장 재정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요구하시고 앞으로 좀 입장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관계 부

처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저는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지방 건설이나 부동산을 필두로 해 가지고 내수 침체가 좀 심각합니다. 올해 부산 지역의 건설사가 6곳, 전남에 4곳, 경남에 3곳 등 부도 건설사의 85%가 지금 지방 업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하락세도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내수 침체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겨진 부산 지역 부동산은 2013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해 가지고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가게도 많이 폐업하고 또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 규모가 1989년 통계 작성 이후에 35년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두운 편입니다.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PF 대출시장 한파로 인해서 지방의 중소·중견 건설사들, 협력업체들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 공급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본적으로는 대출 규제라는 게 상환 능력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거는 사실 기본 방향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할 때 좀 강화되는 부분은 수도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고 대출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좀 보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경기순환을 위해서 지방에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하고 정무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규정들이 해외에서도 직접 통용되지 않는 데다가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많이 내놔고 또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내놔는데 이 법안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의사를 합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 발행이라든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가지고 기업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며 또 소액주주나 외국인 단기 투자자 소송 남발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단체에서도 소송

남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를 우려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법 개정 시도에 대응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李憲昇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만 대상이 되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양수도, 이렇게 소위 일반 주주의 어떤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부분보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절차적으로 해서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두 법안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반 주주의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이라는 데서는 같이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다만 상법의 경우에는 부작용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1983년에 최초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1987년까지 누적 적자가 14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만약 주주들이 배당 확대를 주장하거나 적자 발생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남발했다면 반도체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위원장께서 상법 개정안이나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잘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현정 위원 금감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김현정 위원 금감원장님은 친윤 검사 출신이라 그래서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된 날 조퇴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 비상계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소관기관에 있는 국무위원분들에 대해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근태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감원장님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꼭 제출해 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보직 부서장 명단 관련해서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

다.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원장께서 탄핵 가결 전에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낫다’라고 발언하신 적 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체 문맥은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제 발언이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기사에 그렇게 났고요. 본 위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저희가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그런 거를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김현정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인데요. 그냥 ‘예,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목적범이기도 하고 국헌 문란이라든가 폭동 등 구성요건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금감원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비상계엄이 3일 날 발동이 됐고 탄핵이 7일 날 불성립이 됐고 14일 날 탄핵이 가결됐는데 12월 10일 날 금감원에서 전혀 없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감원 본부 및 지원부서 국장급 75명 중에 무려 74명을 재배치했고요. 그중 절반인 36명을 신규 승진자로 채웠습니다.

금감원장님, 지금 임기가 몇 개월 남으셨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6개월쯤 남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6개월 남았는데 비상계엄 7일 후에 탄핵 가결도 전인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사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가 지금 부원장보 임원이 9명인데 4명이 공석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 12월·1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6월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9월·10월쯤 가야 그다음 금융 당국의 어떤 리더십이 셋업이 될 텐데 사실은 그전까지 이 10개월 동안의 기간이 저희 당국 입장에서 보면 시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기간에 적절한 인사들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지금은 금융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대규모 인사를 다 해 버리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인사를 하면요 그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 바로 전에, 그것도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이렇게 조직을 75명 중에 74명을, 그것도 국장급을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이상한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래서 해당 업무를 맡은 팀장을 국장으로 올리는 그러한 속성이 유지되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금감원 내에서 이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인사야 뭐 어차피 다들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의원실에 다시 한번 좀 보고해 주세요. 저는 이 언론 보도에 났던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더불어 저희가 인사조치를 안 했으면 앞으로 한 10개월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고해 달라고요. 저도 다시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제가 그렇게 꼭 보고드려야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질문 듣고.

○**김현정 위원** 지금 오비이락할 때고요. 금융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인사발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모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장에다 얘기하더니 저희 당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당론으로 발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재계에서 반대를 해요. 갑자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또 입장을 확 바꿨어요. 왜 이렇게 매일 그 말이 오락가락 이렇게 바뀔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감 때도 그런 지적 했잖아요. 왜 자꾸 금감원장이 나서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가계부채 관련된 발언들도 막 쏟아 내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렇게 자꾸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관련된 주무부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발언을 하십니까? 금융위에서 자본시장법 대안으로 법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야 간에 협의하고 또 우리가 낸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금감원장이 의견을 자꾸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지난 1년 동안 반대로 지배구조의……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

질문 다 끝나셨어요?

○**김현정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질문 끝나고 답변하라고. 질문 다 끝나셨어요?

○**김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을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탄핵 가결 전에는 탄핵하는 것이 경제에 맞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12월 3일 날 갑자기 조퇴를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그렇다 보니까 비상계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자료는 또 제출하지 않으시고, 발언은 또 탄핵에 찬성하는 듯하게 얘기를 해 버리시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된 것도……

그리고 그전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조차도 그런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님한테도, 금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금융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주의 조치하라고까지 저희가 그때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되풀이됩니까, 이게? 그것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이제 마무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사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도 지배구조라든가 일반 주주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은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얘기해 온 것이고 그게 입법 방법론적인 방식에서 상법이 좋은지 자본시장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금융위 내지는 국회에 계속 보고드리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현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요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위랑 상의해서 금융위 입장으로 내시는 게 맞는 거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답변을 조금……

**○김현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냐 이거예요, 일관되게나 얘기하시든지. 상법 개정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배임죄는 이제 없애고. 그러다가 갑자기 상법 개정은 아니고 자본시장법으로 한다 이렇게 또 바꾸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상법 개정의 형태가 됐건 자본시장법 개정의 형태가 됐건 내용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다양한 이런 내용 중에서 조금 부작용이 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잘 봐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정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융위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소관 부처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러니까 다양한 안에 대해서……

**○김현정 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금융위에 얘기하세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장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금융위에 보고한 다음에 시장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시고.

금감원장님, 김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게 맞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금감원장님, 지금 김현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될 건데 그냥 시간 씹니다. 자료를 자꾸 제출을 안 해 주세요. 이번 주에 출장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공시 전에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시는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에서 근거를 갖고 요구하는 건데 그 구분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챙겨서 바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오늘 유동수 위원님하고 강훈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뭐 권위 있는 경제지여서 그렇겠지요, 포브스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불법 계엄, 위헌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포브스지가 이 계엄으로 하여금 우리 GDP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GDP 킬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훈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2·3 계엄으로 인해서 세계 투자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뜰이나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지금……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이 돼 버린 윤석열 씨가 경제를 죽이겠다는 버튼을 스스로 누른 거다, 자살 버튼을 누른 거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포브스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100만 명의 국민들이 할부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계엄에 대한 비용을,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보시기에는 이 12·3 계엄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 나가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시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건 제가 지금 추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비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비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 국민들이 받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아니요, GDP 킬러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하방으로 작용할 거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만 위원 어찌 됐든 이 계엄령 사태 때문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도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도 67.6p, 코스닥도 34.3p 떨어지고 민병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가총액 144조 증발하고 OECD에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국가 신뢰도도 떨어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 이게 기회로 작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회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나 경기나 섞여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주는 부분도 있고 이 사태로 인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김용만 위원** 그래서 추산을 해 보면……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 과정을……

○**김용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해외 투자자들 입장이 지금 만나 보면 보도된 것처럼 ‘자, 이제 한국은 투자 대상으로 아니야’ 이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다 하는 겁니다.

○**김용만 위원** 당연히 투자 대상…… 아니라는 거지만 악영향을 받았고 지금 추산을 해 보면 국민들 개개인의 통장에서 수십만 원 정도가 증발을 했다. 그리고 그만큼의 비용이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는 발생이 됐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금감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탄핵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므로 경제에는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취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증시 친화적인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금감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여러 가지 향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국가 거버넌스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경제·금융도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 올린 겁니다.

○**김용만 위원** 그 안정이라는 것을 금융 당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금융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경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은 코스피가 그렇게 될 경우에 2400에서 2700 선까지 반등할 것이다. 제 생각에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금융 당국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고 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코스피가 1.29%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58% 하락하는 등 지수가 동반 하락했고 외국인은 이달 들어 가장 많은 7100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충격 당시와 근접한 수준인 1438.9원으로 마감해서 14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단기간 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이에 우리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저의 이러한 전망이라든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거는 처음에 우려했던 또 처음에 반응했던 것에 비해서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게 기초가 유지될지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금융 당국이 말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병환 위원장께서 내란 사태 이후 줄곧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언제든지 즉시 가동되도록 대기시켜 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은 현재 재가동과 관련해서 금융 당국과 전혀 소통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 내부적으로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는 투입 시점이라든지 가동 기준 등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출자 대상 기관이 증권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인데 거기를 모아 놓고 저희들이 즉시 이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실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게 안전판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닉 상태가 오거나 할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말로만이다. 자런고비가 천장에 굴비 달아 놓듯 쳐다만 보다 끝나겠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시장에 정부의 대책을 충분히 알리고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희망고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위원장이 말한 대로 투입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서 증시 시장에 따라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정문 위원 지난주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이번 탄핵은 모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가 악화된 것은 공통적이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또 여러 대외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그 시절보다는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현재 급등할 정도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정문 위원 지금 미소금융이라든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벌써 11월 말 누적 18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이정문 위원 이러한 취약 차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금융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내년도 업무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좀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서민금융원에서 출연한 햇살론15의 경우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 900억 원을 작년에는 투입을 했는데 현재는 재원 고갈로 내년에는 아마 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재정으로만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금융원의 그런 출연금……

25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원 총량은 동일하지만 아시겠지만 경기 상황 악화 등에 따라서 예상 사업 손실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공급량이 대략 2800억 원에서 1700억 원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일단 재정 부분은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인데 금융권의 출연하는 규모는 법을 개정해 주시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문제는 재정 당국이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금융위는 좀 전에 제가 말한 서민금융정책과 관련된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먼저 준비된 질의가 있는데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금감원장, 12월 3일 날 조퇴한 것 맞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한 3~4시경에 일찍……

○柳榮夏 위원 조퇴 사유가 뭐예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사실 너무 개인적이라서 그런데 그 전날 저희 집이 이사를 했고 제 처가 많이 아파서 조금 그런……

○柳榮夏 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출장 갔다 왔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출장 다녀왔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도 요동치는데 일본 출장 간 게 일본 대형 은행과 연기금 면담하러 갔다고 기사 났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한 출장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주말까지 출장 여부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했는데 일요일……

○**柳榮夏 위원** 다른 부서가 출장 다 그만두고 국회도 출장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청 장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금감원장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금융 당국자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는 알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주지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말을 무겁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심사숙고, 숙성을 시켜서 얘기를 좀 하세요, 불쑥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위원장님께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그때 회의하시면서 어려운 정치 상황이지만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보통주자본비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권고 수준은 한 12% 되는데 보통 5대 지주는 한 13%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보도 보니까 환율이 10% 상승되면 지주별로 조금 다르지만 보통주자본비율이 0.02% 정도 하락한다고 돼 있지요.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밸류업의 주주환원 가치 정책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저해되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도 안 될 거고 배당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보통주자본비율을 지키라 이러면 결국 은행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위험 가상자산 그 비율을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대출을 줄이는 건데 대출 중에도 주담보 대출은 그나마 신인도가 있으니까 덜 줄일 거고 결국 신용대출이나 또는 신용도가 약한 중소기업, 서민들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서민에 대한 금융정책, 보호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을 유지하라는 것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되는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에 대해서 숙고해서 가지고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실 건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햇살론 증액을 했는데 예산안이 감액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증액한 부분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민생 추경이 있을 수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柳榮夏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달에 이미 한 9만 8000명 그리고 기금 한 16조를 돌파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 기간을 보니까 꽤 길니다. 이게 보니까 평균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단축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필요할 때 물을 줘야 됩니다. 불 다 타고 난 다음에 물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관계되는 금융회사가 많고 합의를 보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먼저 금감원장님한테 한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유상증자한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공시한 다음에 월요일 날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몇 건 기억납니다.

○김남근 위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희석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신사업을 하는 것들도 아니고 부채를 갚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해서 주주가 피해 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부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주주 피해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주로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물적분할로 별도 상장에 대해서 주주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내용들은 있지만. 맞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합병·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연구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심이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 피해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최근에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 유보금도 많은데, 신성통상처럼

유보금도 많은데 상장폐지해 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피해 본 사건들도 있었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주주를 보호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합병과 분할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병과 분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종다양한 형태의 주주 피해들이 있는데 그걸 합병·분할에서만 주주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같은 조항들을 도입해서 그런 여러 유형의 주주 피해 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장님도 기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같은 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같은 취지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주주 피해 보호 조항을 둔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 같은 걸 도입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원래의 소신 같은 걸 잘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부분의 유상증자 사례라든가 상폐 사례도 다 상장법인과 관련된 건데 비상장법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관련된……

○**김남근 위원** 상장법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합병·분할만 보호하는 걸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다만 유상증자……

○**김남근 위원** 그리고 정부안에 있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이것도 노력 의무로 돼 있는데 노력 의무라는 게 어떤 법적 규범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호 조항, 일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평소의 소신들을 잘 유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바로 넘겨 주세요. 두 장 넘겨 주세요.

중소기업들의 환율 상승에 대한 피해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상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세 번밖에 없었어요.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때, 세 번밖에 없었는데 지금 1400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해야 되는 중소기업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업체, 건설업체 다 아우성이예요. 이런 것 한번 실태조사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환율이 10%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 비율

만 재룻값 인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나 플라스틱 재료가 되는 나프타 하는 롯데 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종이 하고 있는 한솔제지나 이런 데가 다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 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재룻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급하게 올리는 건 아닌지 또 대부분 한 3개월 전에 수입을 해 왔는데 환율이 오르면 그냥 바로 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를 할 때도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해 왔다가 월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미리 예고해 달라, 언제쯤 가격이 오를지’ 이런 것도 지금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재룻값 올리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재룻값이 오르면 그걸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잘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최근에 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김남근 위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포기각서를 다 쓰게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법에다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 놔 버리니까. 그것 원래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말씀하신 그런 건 일종의 탈법행위인데요.

**○김남근 위원** 그것 다 예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재룻값이 환율 때문에 많이 올라 가고. 그래서 그게 작동하는지를 12월, 1월 동안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 집중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근 위원** 특히 저희가 몇 개 업종은 보니까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의 다 포기각서를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건 그 기업을, 그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회사의 정책으로 그런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 대기업들은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저희 납품대가 연동제의 시장의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김남근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환율이 오르니까 전기료나 에너지값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금업체라고 얘기하지요, 표면처리업체라든가 그다음 열처리업체 같은 데들은 전기료나 에너지값이 주재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납품대금의 20%, 30%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데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재료뿐만 아니라 주재료만큼 전기료나 에너지를 쓰는 데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납품대금 조정·연동 제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순서인데 하시겠습니까?

○**천준호 위원** 한 명만 좀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럴까요?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상훈 위원** 비상계엄은 선택해서는 안 될 수단이었었는데 작금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들어와서만 탄핵 13건, 특검법 13건이 발의가 됐어요. 단순 산술 평균하면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다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매주 탄핵 또는 특검법이 1건씩 발의가 된 거예요. 탄핵안 내용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4명을 탄핵소추하는 후안무치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 가격 통계 조작을 하던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사드 배치 지연 이런 건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소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또 탄핵소추를 해요.

예결특위에서는 일방적으로 4조 1000억을 삭감합니다, 정부안에서. 서민·중산층 챙기고 소상공·자영업자 챙기려면 오히려 증액 협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4조 1000억을 날려 버려요. 지금 회복 불가입니다. 그 감액 대상 예산 안에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예산 500억도 같이 삭감돼 있어요. 매장량, 20% 정도 추정되는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자원 부국의 꿈을 꿀 수도 있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예산을 전액 날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이런 판단 하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국회 상황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서민 연체예요, 서민 연체.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경기의 하방 위험이 상승되고 있고 그러면서 연체자가 계속 늘고 다중채무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하나 크게 만들어서 연체가 되신 분들의 채무 조정은 하고 있고요. 그전의 단계에서 자금 공급이 필요하신 분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늘리고 강화를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앞단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그걸 어떻게 하면,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에 저희 동감을 하고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신용불량자의 자격에서 조금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지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어쨌든 연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분할상환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아까 민주당의 모 위원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분할상환 기간 연장 이 부분도 파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불사금도 늘어나고 또 연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던 소상공·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책도 좋지만 지금 연체 채무자에 대한 그런 정부 차원의 조치를 특별히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국회에 군 특수부대와 경찰이 난입을 했고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내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인데요 당연히 오늘 국무조정실, 총리실이 참석했어야 합니다. 총리의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일 날 계엄 행위에, 내란 행위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본인이 명확하게 떨쳐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히 밝히고 당당하게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무조정실과 총리실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고 있지 않아요. 답변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현재는 총리가 직접 모든 답변자료의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총리가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결재를 해서 그것을 내려보냈습니까?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총리한테 언제 보고하냐고 물어봤더니 보고 일정도 아직 안 정해졌답니다. 이것 완전히 국회의 자료 요구나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총리실 그리고 국조실 실장을 불러서 권한대행이 그리고 당시 총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 사무에 돌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해야만 총리도 당당하게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안에 전체회의가 소집돼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원장님, 지난 12월 6일 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하셨고 거기에서 ‘계엄 사태에 관해서 충격을 받았고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인터뷰한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도 사실입니다.

○**천준호 위원**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일 오후에 이복현 원장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조퇴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앞에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권 유력 인사를 만났다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정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너무 개인적이라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전날 저희가 집이 이사를 했는데 제 처가 많이 아파서 12월 3일 날 오후에 제가 여러 가지 집안일을 좀 챙기기 위해서 집에 가서 집안 업무를 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날 오후에 취소하신 일정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바뀐 은행 담당 부원장이랑 뵙기로 했었는데 그날 새로운 저희 은행 담당 부원장께서…… 저는 사실 바뀐 분들이랑 많이 뵈기 때문에 저희 새로 취임하신 은행 부원장께서 바뀐 분들 좀 서로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저희 부원장께서 뵙도록 했습니다.

○**천준호 위원** 저희가 제보받은 바로는 원래 그 일정은 원장님께서 참석하실 성격의 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지만 감독원장님께서 직접 내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성사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사된 일정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급히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제가 좀 잘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하고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후에, 계엄이 있었던 그 당일 날 오후에 정말 개인적인 일정이고 다른 유력 인사를 만난 것은 없다는 건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제가 선서는 안 했지만 선서한 것에 준해서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면 분명한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여권 유력 인사 누구를 만났는지……

만난 적 없다는 거지요, 아무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천준호 위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안 만났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안 만났습니다.

○**천준호 위원** 만난 적 없는 거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조승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좀 천천히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조승래 위원 지금 할게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기관장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보통 비상계엄이나 무슨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대비계획에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금융위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저희들은 F4 회의가 소집이 돼 가지고요 그 회의를 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간부들 회의를 점검하고 그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F4 회의를 하고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고 관계기관들 회의를 아침에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마저 제가 질문드릴게요.

F4 회의를 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계엄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준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조승래 위원 경제부총리는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 어제 기재위 회의에서 그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비비로 내란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관련해서 그것 지시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없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없었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날 12월 3일 밤 11시경 비상계획 담당자 출근하고 대기하고 보고체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이 비상계엄 상황 모니터링하고 간부들에게 상황 전파하고 조치 상황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서 12월 4일 날 오전 8시 간부회의 소집을 결정을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만약에 계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들이 정지됩니까, 유지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확실해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승래 위원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다 계엄사에 귀속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저희가 관련해서 매뉴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 대비한 충무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이걸 전시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 및 재난사고 위기 대응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무가 정지되거나 권한이 정지되는 그런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계엄의 발동 요건이라는 것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에 대비한 중무계획이 있고 일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이 있는 것인데 계엄에 대한 대비계획은 전시에 준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전시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전시에 준하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조승래 위원 그러면 행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전시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시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전시에 관한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은 군부대, 일부 부처에서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된 전시 대비 계획은 없나?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매뉴얼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11시 한 삼사십 분 정도 저희 소위 F4 회의에 모여서 그날 어떤 조치를 할지 먼저 결정을 하고 사무실에 한 1시 반, 2시쯤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임원이라든가 주요 업권 담당 부서장들을 소집을 해 갖고 한 4시 정도까지 그다음 날 아침 메시지라든가 저희가 조치할 것을 챙기고 귀가해서 그다음 아침 7시쯤에 아마 F4를 저희가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전날 새벽 4시에 챙긴 것들을 그다음 날 아침 7시 F4 회의 이후 한 9시, 10시에 보고받은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비상체제로 가동을 해 갖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계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금감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감원은 아마도 계엄사에서, 행정부 권한 중에 계엄법에 따라 그게 되기 때문에 계엄사에서 별도로 감독원에 대한 포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사실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저희가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라서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저는 법률상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증시 폐쇄 등 이런 조치가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도 아마 그 전날 저희 F4 회의 등에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했고 그다음 날 12월 4일 날 아침 F4 회의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감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준현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준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딱 세 가지만 여쭙볼게요.

첫 번째는 신뢰도 문제인데요,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테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결국은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외국인 투자자들에 조금 잘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정치적 안정이 빨리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떤 의미……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준현 위원 정치적 안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로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 위원 두 번째는 내수 경기 침체인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준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근자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게 나왔는데 지금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에 7월 3일 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한 번 발표를 했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금융 쪽에서는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은행권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12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서민금융진흥원장님.

아, 공정거래위원장님.

아, 서민금융은 안 나오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금리 상황하고 소비 여력이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 계속…… 한은에서 2.5·2.5, 두 번 내렸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0.25, 두 번 내렸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러면 0.5가 내려간 거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준현 위원 그런데 시중에서는 아직 체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그게 보통 3개월 단위 또 6개월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정을 거쳐서 아파금리 인하가 된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신규로 나가는 대출은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좀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조금 더뎠었는데 두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는 감독 당국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속도를 언제까지,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강준현 위원 이복현 금감원장님, 떨어지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저도 금융위원장이랑 인식이 같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물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저도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12월 수치는 좀 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1/4분기 내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 등과 합쳐서 저희가 조금 더 효과 있게 체감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신장식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질의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김병환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신장식 위원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신장식 위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12월 3일 행위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국내 투자자들의 패닉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맞지요? 주식 시장에서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리고 12월 9일 날 국내 투자자들,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패닉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저희들이 한국거래소 갔었는데 그날도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지요, 김병환 위원장님? 12월 9일 국내 투자자들의 패닉셀의 이유?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아마도 그전에 탄핵 부결된 영향이 좀 있었고 개인들 매도가 많았던 것으로 기업합니다.

○신장식 위원 예, 개인들의 패닉셀은 12월 7일 탄핵 불발, 즉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님!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신장식 위원 12월 12일 날 한국일보에 ‘경제엔 탄핵이 낫다’라는 취지, 물론 탄핵 찬성·반대와는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부연 말씀을 붙이셨습니까마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맞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약간 뉘앙스는 그렇습시다만 제 발언은 맞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의결된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각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F4 회의에서도 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신장식 위원** 불확실성 해소됐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 김병환**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가장 큰 불확실성 남아 있는 요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이 빠르게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결국은 정부 전체, 국가 전체 거버넌스 부분이 어떤 변동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고요. 다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식 위원** 따라서 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빠르게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따라서 그것이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자 누구든 그 사람들은 민생의 적이고 국민의 적이다 그리고 내란 잔당이라 불려도 변명할 거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말씀을, 회의 진행 상황을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외부에 있으면서 봤는데요 홍길동 병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래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이세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총구 앞에 있던 사람은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실 거면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특히 현재 앞에서 응원봉 들고 계신 분들 앞에 가서 말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그날 12월 3일 밤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바로 그 시점 이후에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는 대한민국과 내란 잔당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떤 논리 어떤 방법도 민생의 적, 자본시장의 적, 내란 잔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의장에 계시는 기관장님들 그리고 함께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 저와 함께 대한민국 편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란 잔당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관장님 여러분들께도 내란 잔당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간사로서 했는데요. 신장식 위원님 오늘 본 상임위의 취지와 좀 상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구속됨으로써 감정이 많이 격해져 있는 것 같은데 취지에 맞게 좀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신장식 위원 이것을 개인의 감정으로 취급을 하세요? 감정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할 것 너무 많아요.

○강민국 위원 잠깐 시간 좀 멈춰 봐요.

○위원장 윤한홍 시간 멈출게요.

○강민국 위원 신장식 위원님, 질의하잖아요.

시간 좀 줘 보세요.

○위원장 윤한홍 다시……

○강민국 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보호무역 강화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올해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치를 냈는데 내년에 보니까 2024년이 2.2%고 25년이 1.9% 성장 전망을 했더라고요.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0.2% 하락이 예상된다고 이미 그게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한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시에 관계기관 공조하에서 유동성 공급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결국은 전체 유동성 부분은 한은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부분이고 시장별로 보면 주식시장은 증안펀드를 저희들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채권시장이나 회사채·CP 시장은 저희들이 레고랜드 때 만들어 둔 틀이 있습니다. 전체 한 40조 중에 한 27조 정도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금시장 쪽에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 외환 쪽은, 외환 시장은 어차피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비해 나갈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오늘 사실 질의보다도 위원장님한테 또 관계 당국에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지금 사실 정치환경 급변 등을 문제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동력 약화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은 정치환경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과제라 저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님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이든 금감원장님이든 간에 저는 해외로 좀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을, 대한민국을 좀 IR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5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역대 세계의 어떤 유례, 사례에서도 계엄이 되고 5시간 반 만에 해제되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역으로 보면 이게 그만큼 대한민국의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가치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이 2월 달까지 해외로 나가서 런던 시장이든 뉴욕 시장이든 두바이 시장이든 주요 거점을 가서 대한민국 IR을 좀 하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 환경의 급변이 오더라도 또 어느 누가, 하자가 있는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것에 상관 없이 탄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런 걸 하는 데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나 특히 금융 당국, 금융위원장이나 좀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경제팀 전체가 이번에 한국 경제 IR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각 기관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지 그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구체적으로 앞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주요 금융시장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시장, 런던 시장 등등? 좀 나가십시오. 나가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12·3 비상계엄 효과는 저는 끝이 났다고 보고요, 금융시장을 보면.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탄핵 효과입니다. 특히나 공무원 쪽이 굉장히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많지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일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이 각별히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금융감독위원장 이복현** 예.

○**위원장 윤한홍** 더군다나 금융이나 기업 쪽에서도, 왜냐하면 정치권이 각종 기업을 압박하는 법률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세금 관련 문제도 감세다, 증세다 이런 부분에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좀 덜되고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정책 기조에 촉각을 세우면서 투자를 안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특히나 해외 언론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해외 언론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아주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게 국내 언론에 한번 번역해서 보도가 되면 일반 시중에서는 그게 해외의 전체 시각처럼 비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특정 한두 개 해외 언론이 아주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면 국내에서는 해외가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주식이 떨어지면 사는 게 연기금의 기본입니다. 왜?

떨어져서 사야 수익을 낼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미래세대에 수익을 주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주식이 한 4일 정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 습니다. 많이인지 적게인지 모르지만 떨어졌어요. 그 시절에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 그다음에 바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기금이 이익을 본 거지요. 그런데 그때 주식을 사 니까 일부 언론에서 미래세대의 소득 가지고 탕진한다는 듯이 비판 기사가 나옵니다. 코로 나 때 주식이 폭락을 해도 엄청 폭락을 했어요. 그때 연기금이 들어가서 주식 사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면서 안정에 도움도 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금융위원회가 적 극적으로 메시지도 내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탄핵 효과라고 한 것 은 공무원들이 움츠러들고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 국이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주식 시세라든지 한번 보고 있는데 앉아서 죽 보니까 주식은 12 월 3일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환율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나올 때 그때 이미 1400원이 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좀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 문에 그 부분도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평 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유념해서 더 잘 대응하고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배달 수수료 문제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합의해서 끝났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그토록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지 적을 했는데 그걸로 끝났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섯 분 위원님들이 조금 못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3분씩 더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이인영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윤한홍** 이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요, 추가……

○**위원장 윤한홍** 3분씩 다섯 분 신청하셨는데……

○**이인영 위원** 아마 제가 없을 때 체크한 것 같은데.

○**위원장 윤한홍** 여러 분 하실 것 같으면 시간이 안 돼서 2분씩 드려야 돼요.

○**이인영 위원** 그냥 조금 더 하시지요, 3분씩.

○**위원장 윤한홍** 12시에 다들 일정들이 있으서 가지고.

○**이인영 위원** 일정 있는 사람은 먼저 가면 되지요.

○**박상혁 위원** 3분씩은 하셔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다시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보시고, 신청하신 분 들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분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됐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냥 3분씩 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부터 2분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그림이 지금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을 조기에 해소하는 거고 과도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불확실성 해소의 길은 현재에서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부분은 현재가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워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번에 보면 결국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와 그 이후 탄핵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 줬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힘,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해외에 많이 소개되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부분이 많이 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진짜 에너지고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설명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민국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외에 많이 나가서 IR 하고 이런 부분 다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로 특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감원장님이 일본 가셨던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속성 그다음에 역동성, 안정성을 보여 준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사건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한국의 절차라든가 경제의 역동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라는……

○박상혁 위원 결국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불법적 계엄을 한 대통령을 단죄하는 이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의 안정성인 거지요.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고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같이 공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시간을 좀 적게 주셨으니까 얘기하는데,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계속 진행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법인 상법 그다음에 특수법으로서 자본시장법 이 부분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무위하고 소통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권한 밖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기준금리 200bp 정도 차이 났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한 1370~1380원 이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400원대로 잠깐 올라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월 28일 날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올라오고 또 거기에 비상계엄 되면서 1430원대, 오늘 1437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내일 밤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거의 그러잖아요, 99% 인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될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길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환율을 1450원까지 열어 두는 건지, 물론 예측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금리정책을 상대적으로 낮게 감에 따라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금리나 환율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도 보면 지금까지는 달러 인덱스 강세 정도로서 저희 환율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인덱스의 강세 폭보다 지금 저희가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수렴될 수 있을 거라고……

○**유동수 위원** 안정될 거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금융위원장님과 두 분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현재에서도 지난번 12·3 내란 사태 관련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회의록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하라고 한 건데 그때 F4 비상회의에서도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관련돼 가지고 어떤 주요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를 물어보는데 회의록이 없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이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요한 사안에 대한 회의의 기록이 없어요. 국가 기록을 그렇게 형편없게 만드는

게,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왜 그날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F4 회의는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창민 위원** 법적인 근거를 떠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들 회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말 그대로 레고랜드 이후에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한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자유로운 회의든 자유롭지 않은 회의든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관련된 결정이 되는 자리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 말이나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그래서 저희가 그 결론을 보도자료 형태로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창민 위원** 발표도 중요하지만 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공식·비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바는 있습니다.

○**한창민 위원** 시간을 너무 짧게 주셔서 가지고 다른 얘기를 못 하고 관계기관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혹시 IBK기업은행에서 임금채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나요, 실질적인 임금채불 사태?

○**금융위원장 김병환**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관련된 내용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왜 이야기했느냐면 다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우선 세 기관이 비상계엄 매뉴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시장 등 경제 급변 상황에 대한 매뉴얼로 작동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경제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안일해 보여요. 서민금융 등의 이런 정책적인

연장 대응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즉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증시는 연금, 증안펀드 이런 것으로 즉각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민생,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데에 대한 즉각적 대처는 없어요.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대출 이런 것들이 오륙 년 전보다 대출 잔액이나 차주 수 이런 것이 모든 측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는데요. 12월 말 되면 저는 급증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말 특수 지금 거의 없어요. 계엄의 후폭풍이에요. 바로 이어서 내년 1월에 설 있을 텐데요 그 효과마저 없으면 절망적 상황으로 갑니다. 그 재앙적 상황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대처하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해야 됩니다.

앞에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8.4%가 매출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100만~300만 원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거의 절반이에요, 44.5%예요. 경기 전망이 90% 넘게 부정적이에요. 계엄을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독박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성적 대응으로 간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즉각 대응해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 한기정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안 그래도 쾅쾅 얼어붙은 서민·골목경제에 계엄령 선포가 찬물을 부었습니다. 매출이 집중되는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마저 무너졌는데요.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무슨 일정을 가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공주에서 민생토론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바로 전날 충남 공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거래 환경 개선, 노쇼 피해 방지 등과 같은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이정문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여파로 외식업과 숙박업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은 단체예약 취소 등으로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봤고 또 전국 소상공인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며 연말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나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노쇼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공정위 차원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노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하는 이슈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노쇼 피해 상황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바는 아직 없고요.

말씀하신 지원 문제는 저희 공정위가 재정 지원 관련해서 관할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처의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문 위원 지금 연말 최고로 대목을 보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노쇼 피해 당장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내년에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서라도 어쨌든 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실태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공정위원장님한테 이정문 위원님 것에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12·14 탄핵 가결까지 그사이에 저도 여의도를 나가 보니까 저녁때 한식당에 그냥 손님이 한 팀도 없더라고요.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를 난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 비극 상황에서 회식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저는 반드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정위, 산업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서 가지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 그런 걸 꼭 좀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비용 부담하고 있는 게 뭘지는 아시지요? 배달앱 중개수수료예요. 특히 손님이 매장에 안 오니까 주요한 수입인 배달앱에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했다 그러지만 그때 합의한 소상공인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들 대표하는 단체하고 이·미용 이런 것 대표하는 단체였어요. 배달앱을 주로 이용하는 치킨, 피자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하고 외식산업단체는 그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수수료 9.8%에서 2% 내렸다 그러는데 배달료 건당 400원, 500원 올려 가지고 사실은 그냥 조삼모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를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수수료 상한제하고 우대수수료를 도입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가 설정해 놓은 그 도그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

규제 이런 것에 너무 엄매이지 마시고 현실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저는 입법을 통해서도 해결하는 방식들을 공정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금융위원장님, 12·3 계엄 다음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하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용만 위원**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10조 원이라는 게 금융회사들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약정 금액이지 즉시 투입 가능한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게 딱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은 아닙니다. 쿨해서 모이는 자금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요. 즉시 투입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아니면 하루 정도 걸리는 건데 정말 그런 상태로 가용이 가능한 건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즉각이 어느 정도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김용만 위원** 20년에 코로나 당시에 해당 펀드 처음 조성됐을 때 이것 약정 금액 납입하는 데 며칠 걸린 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당시 기관마다 조금씩 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9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좀, 이 질문의 취지가 어찌 됐든 시장의 안정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라서 9일이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경제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고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 조속히 합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하자고 했고요. 여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님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이 회의에 제안이 오면 참석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여야정이 어떤 형태가 됐든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저희도 국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 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감원장님, 비상계엄 선포한 지난 3일 날 22시 25분 정도에 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스템 장애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시점을 보면 전부 다 22시 53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국내 3대 거래소에서만 7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단기 수익에만 너무 집중해서 과도한 마케팅에 몰두하는 반면에 시스템 강화나 정보보호 투자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또 반복이 된 건데,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현장 검사하셨지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 현장 검사에서 나타난 구체적 문제점들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것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표보시면 식품과 외식업체가 앞다퉈서 가격을 인상했어요. PT 보시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2배 이상 높잖아요.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 특수 앞두고 농수축산식품 유통업체들이 가격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저희……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18일 날 카드수수료 관련된 대책 발표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현정 위원** 거기 보면 연 매출 1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또 수수료 인하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던데 이 내용 보면 매출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수수료 부담보다 오히려 매출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게 더 많다는 게 카드사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식으로 그냥 영세·중소 가맹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논리보다는 카드사의 그런 실태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계속 급감해 가지고 신용판매 수익률이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고금리인 리볼빙이라든지 카드론으로 지금 수익을 다 창출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정문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 충실히 잘 반영해서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 위원(2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부위원장 조홍선  
사무처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전성복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  
시장감시국장 김근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부위원장 김소영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 이세훈  
부원장 김병철  
부원장 함용일  
부원장보 황선오  
부원장보 박충현